만암 스님 원력 계승 동종·탱화 불사 회향

백양사, 7월 12일 회향법회
6900여명 동참 동종불사 완료
신중탱화 보존 마치고 점안해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백양사 대웅전에서 열린 동종불사 회향법회에서 조성한 동종을 울리는 무공 스님.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7월 12일 대웅전에서 '동종불사 회향 및 신중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근현대 백양사 중창조인 만암 대종사의 원력을 계승한 두 불사를 장엄하게 회향했다.

이날 법회에는 전 조계종 원로의원인 암도 스님, 현 원로의원 성오 스님, 주지 무공 스님을 비롯해 문도 스님 100여 명과 신도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해 도량을 가득 메웠다.

법회는 백양사 대웅전에 새롭게 조성된 범종을 봉안하고, 100년 전 조성된 신중탱화를 보존 처리한 뒤 원자리로 환수해 점안하는 뜻깊은 의식으로 진행됐다.

백양사 대웅전에 모셔졌던 기존 동종은 본래 불갑사에서 사용되던 것으로, 일제강점기 금속 공출 위기에 처했던 것을 만암 대종사가 목포항에서 회수해 백양사로 이운한 소중한 종이다. 오랜 세월 사용되며 종에 실금이 생기고 소리가 탁해지자, 2020년부터 종불사 추진이 시작됐고, 종무회의를 통해 신종 제작이 의결됐다. 이후 6980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모연을 바탕으로 '고불총림 백양사' 이름을 새긴 새 종이 완성돼 이날 대웅전에 봉안됐다.

신중탱화는 1922년 만암당 종헌 대종사가 백양사 대웅전을 중창하면서 조성해 봉안했던 불화로, 100년의 세월 속에 훼손이 심해졌다. 이에 주지 무공 스님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맺고 약 10개월에 걸친 보존 처리를 진행해 이번 법회를 통해 본래의 자리로 복원하게 됐다.

주지 무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불사와 신중탱화 점안을 통해 이 도량에 부처님의 자비와 신중님의 위신력이 가득 깃들게 되었다"며 "범종소리에 담긴 모든 불자들의 이름과 원력이 법계에 퍼져 복덕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백양사가 선맥을 잇는 청정도량으로서 수행과 나눔이 함께하는 사찰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스님은 이날 새롭게 조성한 동종에 대해 "백양사만의 의미를 담고자 한쪽 면에는 '고불총림 백양사' 명호를 새겼고, 반대쪽에는 백양사의 흰 양 전설의 의미를 담아 '양머리를 한 비천상'을 새겼다. 그리고 종의 하단에는 팔정도 사리탑의 의미를 넣어 당좌 8곳을 아래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법문에 나선 성오 스님은 "백양사의 종소리는 지옥 중생을 위로하고, 깨달음의 계기를 주는 불음(佛音)"이라며 "종소리의 여운처럼 시주자의 공덕도 법계에 퍼진다"고 설했다. 이어 "신중탱화는 불법을 지키는 신중님을 다시 모시는 의미 있는 불사로, 이 인연에 동참한 불자들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큰 복을 지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무공 스님은 동종불사에 큰 공헌을 한 덕운향 보살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동국대-인제군, '님의 침묵' 기념사업 추진

7월 11일 공동 합의문 서명

만해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동국대와 인제군이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

동국대(총장 윤재웅)와 강원도 인제군(군수 최상기)는 7월 11일 인제군 동국대 만해마을에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사진〉

서명식에는 윤재웅 동국대 총장과 최상기 인제군수가 참석했으며, 전한성 동국대 만해연구소장, 김윤길 기념사업위원회 운영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배석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뜻을 모았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님의 침묵〉 100주년 기념행사를 민족·진영·지역·종교 등을 아우르는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만해 선사의 위대한 정신이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한성 만해연구소장은 "시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현재 다채로운 기념사업을 기획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더욱 성공적인 기념행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7월 12일에는 윤재웅 총장과 만해연구소 관계자들이 설악산 오세암을 직접 방문해 기념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관계자는 "이번 인제군과 동국대학교의 공동 협력은 만해 한용운 선사의 숭고한 정신과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님의 침묵〉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다음 세대에도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도심 스님, 생활풍수 CEO 총동문회장 연임

7월 13일 4대 집행부 출범
"생활풍수 대중화 이끌 것"



사단법인 불교정중연등종 이사장 도심 스님이 7월 13일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 CEO과정 총동문회 4대 회장에 연임, 집행부 위촉식을 열었다.

사단법인 불교정중연등종 이사장 도심 스님(안성 연등사 주지)이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 CEO 총동문회 제4대 회장으로 연임됐다.

동국대 생활풍수 CEO 총동문회(총동문회장 도심 스님, 이하 동풍동문회)는 7월 13일 안성시 일죽면에 위치한 연등사에서 제4대 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도심 스님의 회장 연임과 함께 33명의 신임 임원으로 구성된 4대 집행부 출범을 알렸다.

도심 스님은 2019년 동풍동문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이후, 생활풍수 CEO 과정을 수료한 동문들과 함께 학문적 연대와 사회 환원을 실천해왔다. 특히 동국대학교 발전기금 4천만 원 기부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후학 양성 기금 1천만 원 기탁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며 교육기관과의 유대 강화를 도모해왔다.

도심 스님을 중심으로 동풍동문회는 풍수지리의 가치를 사회에 확산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동풍동문회는 화장문화 보급 속에 묘자리를 보는 음택에서 생활에 밀접한 양택으로의 변화를 주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도심 스님은 "생활풍수는 우리 삶을 더 건강하고 균형 있게 만드는 삶의 철학"이라며 "앞으로도 나눔과 실천의 자세로 생활풍수가 보다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장 연임과 신임 임원진 출범은 동문회를 넘어 생활풍수 분야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 스님은 올해 2월 사단법인 불교정중연등종을 발족하고 이사장으로서 장애인 청소년과 가정을 돕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심 스님은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베푸는 것은 결국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과 나눔의 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풍수지리는 단순한 학문을 넘어 인간과 자연, 사회를 조화롭게 이어주는 삶의 지혜이기에, 앞으로도 후학 양성과 사회 환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화엄사서 만나는 뮤지컬 갈라콘서트

8월 2일 '모기장 음악회'


지난해 열린 화엄사 모기장음악회.
사진제공=화엄사

조계종 제19교구본사 지리산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가 오는 8월 2일 오후 7시 30분, 경내 화엄원 특설무대에서 제5회 '모기장 영화음악회'를 개최한다.

올해 공연은 '화엄! 빛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주제로, 뮤지컬계 대표 배우 이건명 씨가 사회자와 출연자로 함께 무대에 선다. 더불어 뮤지컬 배우 리사, 팝페라 가수 아리현, 장소연 등이 참여해 '노트르담 드 파리' '위대한 쇼맨' 등 갈라 콘서트를 100분간 선보일 예정이다.

주지 우석 스님은 "문화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공동체와 함께 호흡하는 화엄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윤명 대선사 42주기 추모다례재

7월 12일 생전예수재 초재도


조계종 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가 7월 12일 선운사 초대 주지로 사격을 일신한 남곡당 윤명 대선사 42주기 추모다례재와 생전예수재 초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추모재는 남곡 스님의 문손 재곤 스님을 비롯해 선운사 원로 대우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내장사 주지 대원 스님, 참당선원장 법만 스님, 개암사 주지 종고 스님, 우리절 주지 법경 스님, 종회의원 태효 스님 등 선운사 사부대중 60여명이 참석해 생전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추모재 후에는 생전예수재 초재가 봉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곡사, 일현 스님 34주기 추모다례재

7월 10일 경내 관음전서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는 7월 10일 관음전에서 근대 한국불교 의례 정립과 교육에 헌신한 취담당 일현 대종사의 34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주지 직무대행 혜경 스님은 봉행사에서 "일현 대종사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익산에서 출가하신 뒤, 평생 염불과 참선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하신 종문의 큰 스승"이라고 회고하며 "스님의 뜻을 이어 문도 대중이 마음을 모아 수행환경을 개선하고 신명으로 함께하는 불교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다례재에서는 일현 대종사의 교육 정신을 계승하고자 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열렸다. 장학금은 동국대에 재학 중인 승현 스님, 지견 스님, 원민 스님을 비롯해 동학사 승가대학의 법우 스님과 법륜 스님 등에게 각각 전달됐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고성 서방사, 관정 대사 18주기 다례재

7월 13일 극락전서 봉행



대한불교정토선종 총본산 서방사(주지 등정 스님)는 7월 13일 경내 극락전에서 관정 대사 열반 18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석에는 총무원장 등정 스님과 지장암 일각 스님, 성덕사 도안 스님, 금선암 혜정 스님, 구암사 혜수 스님, 광명사 법안 스님, 최종환 신도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등정 스님은 법어에서 관정 대사의 원력과 가르침을 기리며 "대사께서 전해주신 정토선 수행법은 말법시대 중생들이 쉽고 빠르게 성불할 수 있는 길"이라며 "수행이란 굳건히 길을 내는 일이며, 자비는 단순히 물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헤아려 베푸는 것"이라고 실천을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주 신일중, 태고종 보문사 문화탐방

7월 10일 불교문화 체험



전주 신일중학교 학생들이 태고종 전북종무원 보문사를 찾아 불교문화와 지역의 역사를 배웠다.

7월 10일, '우리 지역을 알고 싶어요'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탐방에는 전주신일중학교 3학년 학생 15명이 참여해 보문사의 문화유산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사진〉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마이산 탑사 회주)은 "누구나 종교를 가질 수 있지만, 종교에 속박되는 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문사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종이를 모아 만든 '종이 부처님(紙佛)'이 있는 역사 깊은 사찰"이라고 소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보명사, 불사 원만 회향 기념 산신기도

7월 12일 일주문 기와 불사 등



천안 성거산 보명사(주지 활암 스님)가 7월 12일 일주문 기와불사 등 주요 불사의 원만 회향을 기념하는 '21일 특별 산신기도'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는 그간 진행해 온 일주문 기와 및 단청 불사, 해태 석물 조성, 박공 불사 등 경내 주요 불사를 원만히 회향한 것을 기념하고, 도량 전체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지 활암 스님은 "우리가 짓는 불사는 사찰의 외형을 만드는 것을 넘어 부처님 법을 믿는 신심 위에 발원과 정성을 더하는 수행의 길"이라며 "기도와 불사는 본디 하나이기에 작은 정성도 회향의 공덕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여수 보문복지회, 삼계탕 나눔

7월 11일 성산공원서



여수 향일암과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이사장 연규 스님, 향일암 주지)는 7월 11일 여수 성산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어르신 500여 명을 초청해 '삼계탕 나눔행사'를 개최했다.〈사진〉

행사에는 보문복지회 이사장 연규 스님을 비롯해 주철현 국회의원, 문갑태 여수시부의장, 보문복지회 산하 직원과 지역 어르신 등 600여 명이 동참했다.

연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삼계탕은 보문복지회 모든 가족들이 정성을 담아 준비한 보약 같은 음식"이라며 "무더운 여름,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